

강원지역 사찰 44% '6·25 피해'



△한국전쟁 직후 월정사 모습. 전체 22동 가운데 21동의 건물이 불타버리고 팔각구층석탑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조계종, 조사보고서

한국전쟁 당시 강원지역 사찰의 44%가 직접적 피해를 입었으며 불교문화재도 절반 이상이 멸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발간

한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I - 강원도편>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한국전쟁 당시 불교문화재의 피해 과정과 형태, 내용, 가해 주체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지역 38개 사찰과 7개 폐사지가 한국전쟁으로

불교문화재도 절반이상 멸실

직접적 피해를 입었다. 일제시대 때 나온 본·말사지와 조선총독부 관보와 비교해 불 때 강원지역 전체 사찰의 44%에 해당되는 수치다. 더구나 건봉사, 월정사 등 이 지역을 대표하는 큰 사찰들이 모두 전소되거나 폐허화된 사실에 비춰볼 때 문

간인들에 의해 소각됐으며 건봉사, 낙산사, 영월 보덕사 등은 미 공군 폭격으로 소실됐다. 북한군과 중공군에 의한 피해 사례는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 형태별로 보면 건봉사, 낙산사, 월정사 등 31개 사찰(81%)이 전

건봉사·월정사 등 31개 사찰 전소

폭격·소각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

화재 접수로는 절반에서 최대 3분의 2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조사를 맡은 문화부 이상규 과장의 설명이다.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은 가해 주체가 확인된 20곳이 국군의 소각(14 곳)이나 미군 폭격(6곳)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다. 월정사는 국군1군단 사령부의 명령을 받은 민

소했으며 신흥사, 백담사 등 5개 사찰(13%)은 폐허가 돼 조사대상의 94%가 재생활능의 피해를 입었다. 조계종은 2001년부터 한국전쟁 불교문화재 피해 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2003년 경기도와 제주, 2004년 전라남도, 2005년 충청남도, 경상남도북도를 발간할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 jiny@buddhapia.com

충주 송선사지 사적지정 강릉 굴산사지 지정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주 송선사지를 국가사적 445호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강원도 기념물 11호인 강릉 굴산사지를 사적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하고 관보에 이를 예고했다. 굴산사지는 30일간의 지정예고를 거쳐 사적으로 정식 지정된다.

충주 송선사지는 고려 광종이 어머니 신명순성왕후를 위해 세운 사찰로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확인된 고려시대 창건 사찰이다. 국내에선 처음으로 금동연봉장식이 출토된 바 있다.

강릉 굴산사지는 지난해 태풍 피해로 인한 긴급 발굴조사 때 법당터와 승방터, 탑터 등이 발견됨으로써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받았다.

한편 국내에선 거의 유일한 일본식 사찰인 군산 금강사 대웅전(1913년 조성)은 4월 24일 등록문화재 63호로 지정 예고됐다. 등록문화재란 사라져가는 근대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지난 2001년 도입한 제도이다.

권형진 기자



△경산대는 4월 29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원효 설총 일연 스님의 업적을 기리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경산시, 세분 성현 기념관 설립

원효·설총·일연 스님 업적 추모

경산지역에 원효, 설총, 일연 삼성현 기념관 설립을 위한 고충 학술대회가 열렸다.

경산대는 4월 29일 대구 파크호텔에서 경산지역 삼성현의 업적을 기리는 학술대회를 열고, 삼성현 기념관 설립과 유적보존사업을 다각도로 모색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삼성현 현창사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경산문화연구원 소장 조준호교수가 주제발표를 한 데 이어 원효, 설총, 일연 스님의 생애와 경산지역의 관계에 대해 각각 동국대 김상현, 서울대 안병희, 부산대 채상식 교수가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조준호 교수는 삼성현 현창사업은 원효와 설총, 일연스님을 추모하는 기능을 주로 하고 연구와 문화, 체험 등 부가기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불교회화 진수 80점 공개 통도사, 10월 19일까지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문화관광부와 한국박물관협회의 후원으로 국가 지정문화재 특별전을 연다.

“통도사의 불화”를 주제로 열리는 국가 지정문화재 특별전은 1일 개막식을 갖고, 10월 19일까지 성보박물관 2층 기획전실에서 사찰소장 불교 회화 작품 80여점을 선보인다. 보물 13점을 비롯해 경남 지방유

형문화재 52점 등 80여 점의 후불탱, 신중 각부탱, 조사탱 등으로 꾸며진 특별전은 불화명품전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특히 보물 1041호인 영산전 팔상탱과 보물 1042호인 대광명전 삼신불탱 등은 조선후기의 통도사 불화의 대표작들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 관장 범하스님은 “종교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조선 후기 통도사 불교미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다양한 모습을 조명해 보는 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청년회원이 대형 지구등을 재색하고 있다.

대형 지구장엄물·우주등 선보여 지수화풍의 소중·감사 뜻 담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지구 온난화, 심각한 환경파괴, 전쟁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 문제를 환기시키면서 사람의 이기심을 돌아보고, 사람과 지구의 관계를 청년회원들도 이해하는 실마리를 찾아 나섰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청년회는 대형 지구장엄물, 우주등을 만들어 생명의

근본을 이루는 지수화풍에 대한 감사함과 소중함을 되새겼다. 수채화 기법으로 재색되어 연꽃 위에 올려진 대형 지구 장엄물은 지구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전세계 인류의 평온과 행복을 기원하는 뜻을 전했다. 신진희 회장은 “지구의 문제는 결국 나에게서 출발하는 만큼 생활속의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연등 만드니 부처님 마음 되듯 같아요”

미·일·캐나다서 온 외국인 60명 참가

“너무 아름다워요. 연등 만들면서 부처님 마음된 것 같아요.” 4월 27일 부산 신창농장내 흥법사주지 심산에서 열린 외국인 연등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은 팔각등과 연등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사)한나래문화재단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연등의 의미와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연등을 만들어가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전달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60여명의 외국인이 참석한 이번 연등만들기에서는 연등과 팔각등 하나씩을 만들어 자신이 만든 작품을 기념으로 가져갈 수 있게 했다.

심산스님은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을 만나는 인연을 심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울산시, 법회·음악제 봉행 '가족을 부처님처럼' 주제

울산시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놀암)는 4월 29일 KBS 울산홀에서 3천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가족을 부처님처럼’이라는 주제로 봉축대법회 및 불교음악제를 봉행했다. 불교음악제는 국악인 김성녀씨의 사회로 울산지역 불교연합합창단의 찬불가, 운문사승가합창단 지휘자 정을 스님의 공연이 이어졌다. 천미희 기자

‘생명에 대안 없다’ 주제 토론회

고속철 등 무분별 개발 피해 부각

지을 스님 활동 본격화

단식 이후 한동안 뜸했던 지을스님이 20일경 ‘생명에 대안 없다(가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간과되고 있는 생명 문제를 부각시켜 생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끌기 위해 마련된다. 간단

한 주제발표 뒤에 이어질 난산토론에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속철 건설을 비롯 생명의 문제를 등한시한 무분별한 개발이 부르는 폐해와 문제 등을 부각시킬 예정이다. 또한 지을스님은 일주일에 한번 부산시청 앞에서 서명운동, 삼보일배 등 지속적으로 생명문제에 대

한 여론을 환기시키는 행사나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단식 이후 지을스님의 최대 화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생명의 소중함을 공감토록 하는 것’이다. ‘초록의 공방’ 모임을 만들고 매일 한차례 천성산 산행을 이끌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스님과 뜻을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은 4일, 내원사를 출발, 은방울군락을 지나 화엄사로 이어진 초록의 공방 산행으로 천성산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 천미희 기자

지장발심 점찰기도 법회 대구지장선원 7일동안

대구 지장선원은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주지 지공스님이 직접 개발한 간지를 대나무통에 넣어 흔들어 점치는 지장발심 점찰기도법회를 열었다.

점찰기도는 신라의 원광법사가 처음 시작해, 삼국통일 후 진표율사에 의해 정착된 것으로 ‘지장경’에서 나오는 말법시대 증생교화 및 제도를 위한 기도인 한 방편이다. 박원구 기자

특색있는 경로당 만들기 대구 햇빛시니어클럽

대구불교사회복지회(대표 지도) 대구햇빛시니어클럽은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특색 있는 경로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햇빛시니어클럽은 대구시 남구 지역 3개 경로당을 선정, 공동작업장, 뜨개방, 도서관, 건강센터 등의 공간을 만들고 있다. 박원구 기자

우리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수신토종오가피 수신천사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제재사 성광수씨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친사할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였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천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5300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 중독, 나병, 알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절멸,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하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善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靑眼에 마음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勿違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국검필(본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

식물은 本蔘에는 上蔘 120가지 中蔘 120가지 下蔘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蔘중의 첫째가는 靑蔘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산대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